



'수영 황제' 펠프스 '올해의 스포츠맨'

美 스포츠주간지 SI 선정

'수영황제' 마이클 펠프스(23·미국·사진)가 스포츠주간지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SI)의 '2008 올해의 스포츠맨'으로 선정됐다...

해의 선수를 골라왔지만 이번이 가장 쉬운 선택이었다. 펠프스가 수영뿐만 아니라 올림픽 전체를 바꿔놓았다는 것은 너무도 확실하다...

이스(미국), 파보 누르미(핀란드) 등이 지켜온 최다 금메달리스트(9개) 자라도 훌쩍 뛰어넘어 '살아있는 전설'로 거듭났다.

히어로즈 VS 우리담배 후원금 공방 장기화 될듯



프로야구 히어로즈와 우리담배(주) 간 후원금 24억여원을 둘러싼 지급 공방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담배 경영 악화 법원 지급 판정 나도 지급 시기는 불투명

회사 사정이 이따기보다 히어로즈가 낸 가져분 신청을 신청 쓸 전담 실무진조차 없는 형편이다.



김선빈



나지완



김원섭

프로야구 KIA 올 시즌 우등생들

팀 부진 속 빛난 보배들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올 시즌 4강 후보로 주목을 받았던 KIA 타이거즈는 주전들의 줄부상과 부진 속에 4강 탈락의 쓴 맛을 봤다.

조범범 감독에게는 잊고 싶은 2008년이 지난 올 한해를 잊을 수 없는 선수들도 있다.

지난해 3.78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도 7승18패로 최다패의 불명예를 안았던 윤석민은 올 시즌 14승을 챙기며 다승 2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게다가 평균자책점왕(2.33)에 올라선 윤석민은 최종 엔트리 마감을 앞두고 기적적으로 올릴픽대표팀에 발탁되는 영광을 얻었다.

지난해 호된 경험을 바탕으로 한 흥성장한 윤석민은 올 시즌 '비운의 에이스'에서 '국가대표 에이스'로 거듭났다.

KIA 강속구 군단의 일원으로 등극한 이범석도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입단 동기 윤석민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무명' 이범석은 지난 5월7일 사자군단을 상대로 프로데뷔 4년 만에 첫승의 감격을 누렸다.

7월 4일 삼성과의 대구 경기에서는 아웃카운트 하나가 부족해 아쉽게 노히트 노런을 놓치기도 했던 이범석은 올 시즌 3.08의 평균자책점으로 7승 고지에 올랐다.

매 경기가 새 기록이 되는 신인들에게도 2008년은 특별했다.

프로야구 최단신 선수(164cm)로 눈길을 끌었던 내야수 김선빈은 용병 발데스의 퇴출과 함께 유격수 자리를 꿰차며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112경기에 나선 김선빈은 고졸 신인답지 않은 당당한 모습으로 0.255의 타율을 기록하며 자신의 기록지를 차곡차곡 메워갔다.

13개의 실책으로 프로의 높은 벽을 실감하기도 했지만 한계 속에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었다.

드라마 같은 한 해를 보낸 '차세대 거포' 나지완도 있다. 나지완은 개막전 4번자리를 꿰차며 우타거포의 부재로 고심하던 KIA에 구세주로 등장했지만 냉정한 프로 세계 적응에 실패해 이내 2군을 전전해야 했다.

특유의 자신감과 오기로 무장해 돌아온 나지완은 결국 0.295의 타율과 6개의 홈런으로 2008시즌을 마무리 지었다.

8년차 김원섭은 올 시즌 처음으로 규정타석을 채우며 윤석민, 이용규와 함께 골든 글러브 후보에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얻었다.

비록 다른 후보에 비해 힘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만장일치를 이겨내고 106경기에 출전, 404번 타석에 들어섰다는 것만으로도 김원섭에게는 감격스러운 일이다.

차일목은 주전 포수 김상훈의 부상속에 안방을 도맡아 바쁜 한 해를 보냈다.

4월 12일 김상훈이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막중한 책임을 맡은 차일목은 경기가 진행될수록 안정된 모습을 갖추며 그라운드를 접수했다.

백업포수에서 주전 김상훈의 경쟁자로 성장한 차일목은 '수비형 포수'라는 틀에서 벗어나 프로데뷔 6년 만에 첫 홈런포를 쏘아올리는 등 자신의 기록을 새로 써나갔다.

부상에서 회복된 선수들과 새로 가세한 신인들과의 경쟁으로 내년 시즌을 장담할 순 없지만 아쉬운 팀 성적 속에서도 팬들의 허전함을 달래준 이들의 도전기는 2009년에도 계속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윤석민



이범석



차일목

KBO 차기 총재 낙하산 인사 우려

프로야구 사장단 표명

한국야구위원회(KBO) 차기 총재를 놓고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낙하산 인사'에 대해 프로야구 사장단이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프로야구 8개 구단 중 6개 구단 사장단은 3일 오전 서울 시내 모 호텔에서 조찬을 겸한 간담회를 열고 조기 사퇴를 표명한 신상우 KBO 총재의 후임 인사에 대한 원칙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사장단은 이 자리에서 후임 총재는 ▲평소 야구에 대한 관심이 있고 ▲KBO 총재직을 명예직으로 생각하고 ▲야구계 신망을 얻는 인사여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신상우 총재가 골든글러브 시상식 이후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야구계에서는 정치권 인사가 후임 총재로 이미 내정됐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장단은 '낙하산 총재'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셈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인사는 "김영수 전 LG 사장에 대한 송별회 문제를 논의 하려고 모인 자리였지만 얘기 끝에 후임 총재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다"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는 소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야구 발전에 관심이 있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인사라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모셔와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부리그팀 번리 '돌풍' 아스넬 잡고 4강 진출

잉글랜드 프로축구 칼링컵

잉글랜드프로축구 챔피언십(2부리그) 번리FC가 2008-2009 칼링컵 8강전에서 프리미어리그(1부리그) '강호' 아스넬을 잡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번리는 3일(한국시간) 새벽 영국 랭커셔주 번리 터프 무어스타디움에서 치러진 8강전에서 아스넬을 상대로 연속골을 터트린 케빈 맥도널드의 맹활약을 앞세워 2-0 완승을 거뒀다.

이로써 16강전에서 '난장' 첼시를 승부차기 끝에 물리치고 8강에 오른 번리는 아스넬마저 잡아우면서 시즌 칼링컵 최고의 이변을 연출했다.

특히 이날 승리로 번리는 지난 1월 아스넬과 FA컵 3라운드에서 0-2로 패했던 아픔도 깨끗하게 앙갚음했다.

한편 더비카운터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로 승격된 스토크시티를 1-0으로 꺾고 4강에 합류했다.

/연합뉴스

올해 프로축구 K-리그에서 최고의 플레이를 펼친 포지션별 스타는 누구일까.

프로축구가 수원-서울간 챔피언결정전을 끝으로 막이 내리는 가운데 오는 9일 K-리그 시상식 때 발표될 '베스트 11' 영예의 주인공 후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개 구단은 4-4-2 포메이션에 맞춰 골키퍼 1명과 수비수-미드필더 각 4명, 공격수 2명 등 베스트 11 후보 명단을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냈고 연맹 심의와 기자단 투표를 거쳐 각 포지션에서 최고의 선수들이 결정된다.

가장 관심이 높은 포지션은 외국인 스트라이커와 토종 골잡이들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공격수 부문. 이번 시즌 정규리그 득점왕(15골)에 오르며 갑대회



올 시즌 최고의 플레이어는? 9일 '베스트 11' 발표

를 포함해 가장 많은 18골을 넣은 두두(성남)와 수원을 정규리그 1위로 이끈 에두(15골·수원), '몬테네그로 특급' 데안(14골), 정조국(7골·이상 서울), 국내 선수 중 득점 1위(13골)에 오른 이근호(13골), 예닝우(17골·이상 대구), 라돈치치(14골·인천), 정성훈(8골·부산) 등이 최고의 공격 첨병 두 자리를 놓고 다툰다.

이근호는 2년 연속 공격수 베스트 11에 도전장을 냈

고 두두-에두-데안-예닝우-라돈치치는 지난해 수상자 까보레(전 경남)에 이어 외국인 최고 골잡이 경쟁을 벌인다.

네 명씩을 뽑는 미드필더와 수비수 부문도 국내파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지난해 미드필더 베스트 11에 들었던 4명 중 이관우(수원)와 김두현(전 성남·잉글랜드 웨스트브롬), 파바레즈(전 포항)는 이적하거나 후보 명단에서 빠졌고 베테랑 김기동(포항)만 두 시

즌 연속 최고 중원사령관 낙점을 노린다. 정규리그 1위팀 수원에서는 조원희, 백지훈, 홍순환이 후보로 추천을 받았고 서울에서는 '쌍용' 기성용, 이청용과 김치우, 김한윤이 도전장을 냈다.

정규리그 3위 성남은 김정우, 김상식, 한동원을 추천했고 오창은(울산), 황지수(포항), 김형범, 최태욱, 신광훈(이상 전북), 전재호, 드러간(이상 인천), 김동찬, 서상민(이상 경남), 송경현(전남), 구자철, 전제운

(이상 제주), 하대성(대구), 박희도(부산), 고종수, 권집(이상 대전) 등도 구단이 추천한 후보 명단에 포함됐다.

수비수로는 '통곡의 벽'으로 불리는 마토(수원)가 3년 연속 최고의 센터백으로 낙점될 가능성이 크고 2년 연속 선정에 도전하는 아디(서울)와 대포팀에 발탁됐던 조용경(제주), 권희주, 송종국(이상 수원), 김치곤, 김진규(이상 서울), 최호진(포항), 강민수, 임우환(이상 전북), 권태환(전남) 등이 베스트 11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골키퍼는 '거미손' 이운재(수원)가 0수위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정성룡(성남)과 김영광(울산), 김호준(서울), 김지혁(포항), 권순태(전북), 염동균(전남), 김용대(광주)가 도전하는 형국이다.

/연합뉴스